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

이종길¹, 이공주², 양재식³

¹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²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교수,
³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Analysis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to Sport Issues in SNS

Jong-Kil Lee¹, Kong-Joo Lee², Jae-Sik Yang³

¹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²Professor, Division of Radio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

³Researcher, Institute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로부터 집합행동이 명확히 관찰되는 스포츠이슈 5건과 관련 포털 기사 5건을 선정하였고, 그 댓글 중, 추천 수에 따른 상위 100개 씩 총 500개의 댓글을 집단감정의 분석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해당 이슈로부터 발생한 대중의 행위를 집합행동의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각 분석대상 댓글과 집합행동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에서의 스포츠 집단감정은 스포츠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스포츠이슈, 집단감정, 집합행동, 감정동학, S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to sport issues in SNS. For the purpose, 5 sports issues with obvious collective behavior and 5 concerned articles in typical portal sites were selected. From those, each 100 comments with highest recommendation and 5 obvious actions made by the crowd were sampled as the analysis subject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o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materials were as follows. First, collective emotions showed differences by the sports issu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in SNS. This study could receive a favorable evaluation due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n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Key Words : Sport issue, Collective emotion, Collective behavior, Emotional dynamics, SN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3926821)

*Corresponding Author : Jae-Sik Yang(4774495@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1, 2018

Revised January 8,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스포츠가 가지는 원초적 감정의 합법적 표출구라는 속성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스포츠 현장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강렬한 감정을 마음껏 드러낸다[1]. 그리고 이러한 격렬한 감정은 그 대상이 되는 경기의 선수, 혹은 팀과의 연대의식 혹은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동질감을 토대로 집단적 공통성을 지닌 집단감정을 형성하게 된다[2,3].

이처럼 스포츠를 통해 집단감정이 형성되는 기제를 스포츠 감정동학이라 한다[4]. 스포츠 감정동학은 거시적 감정사회학에 적용되는 감정동학의 기제를 스포츠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스포츠이슈와 집합행동, 사회 변화의 맥락적 과정과 집단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4]. 단순화하여 표현하자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포츠이슈가 집단감정을 형성하고 이 집단감정이 집합행동의 원인이 되어 사회구조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5].

집단감정이 집합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고전적인 사회학 이론들은 집단감정의 형성을 이성적 합리성을 상실한 단순한 흥분 상태의 전염으로 나타나는 혼란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6].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감정이 조작자와의 혹은 군중 간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매우 혼돈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집합행동이라 보았던 것이다[7,8].

반면, Smelser는 구조적인 긴장이 조성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 간에 보다 나은 상황(가치)을 지향하는 일반화된 믿음이 형성되고, 여기에 모종의 사건 등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그 일반화된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집합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7,9]. 그러나 Smelser의 이러한 이론은 일반화된 믿음이 집단감정이 되어 집합행동을 발생시키게 되는 조건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 이론의 부족한 부분은 감정동학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감정이 단순한 느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외부자극을 수용하여 인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6,10]. 즉,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인지하면 이에 대한 적대적 감정(정제된 분노)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행위를 하거나 기존의 행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6]. 나아가 사회 구조 속의 일반화된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집단감정을 형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집합행동의 동력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를 살펴볼 때, 경쟁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 현장은 구조적 긴장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스포츠라는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팀의 승리 또는 정당하고 멋진 플레이 등 경기의 결과로서 나타날 상황에 대한 기대, 즉 일반화된 믿음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최종적인 스포츠 경기의 결과라는 촉진요인이 더해지면, 승리를 얻거나 혹은 패배를 하거나, 항상 앞으로의 더 많은 승리 혹은 다음번의 실욕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한 집단감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집단감정은 승리를 기원하거나 패배를 책망하는 등의 집합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스포츠이슈와 집단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 집합행동의 사이에는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따른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론된다. 그러나 스포츠 감정동학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관련된 실증 연구는 프로야구가 지역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1], 스포츠이슈에 대한 감정동학 분석 연구[4]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중 [11]의 연구는 스포츠이슈로서의 프로야구가 집단감정으로서의 지역감정에 간접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4]의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의 인과관계를 보고하여,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나타나는 인과관계의 일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행동이 명확히 관찰되는 스포츠이슈를 조사하여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나타나는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빅데이터(Big Data)라고 지칭되는 막대한 용량의 자료를 만들어 내는 바탕이 된다[12]. 동시에 익명성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을 정도로 외부적 구속이 없는 감정과 생각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또한 SNS에 의해 생성되는 빅데이터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그 자료의 내용 및 생성과 영향관계에 대한 상황적·맥락적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12]. 결국,

SNS를 바탕으로 규범에 구속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감정표현을 집단감정으로 간주하고, 역시 불특정 다수의 공통된 방향성을 지닌 SNS에서의 활동을 집합행동으로 파악하여, 양자 간의 맥락에 따른 스포츠감정과 집합행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할 경우, 통계적 객관성을 가진 스포츠 감정동학 기제의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장으로 간주하고 이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집합행동이 명확히 드러나는 스포츠이슈와 그에 대한 포털 기사를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사의 댓글과 해당 이슈에 연관된 SNS 상의 대중의 행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표적 SNS로서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사전 조사를 통해 2010년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중국전 패배 이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안현수 금메달 획득 이슈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노선영 출전 자격 관련 이슈·여자 팀 추월의 탐원 따돌림 이슈·빙상연맹 임원 방문으로 인한 이상화 선수의 컨디션 조절 논란 이슈 등 총 5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논조를 가진 포털 기사 5건을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 수집 대상으로 임시 선택하였다.

포털사이트 상의 이슈와 기사를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집합행동과 집단감정의 실행과 표출에 있어서 네트워크 기반 미디어인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댓글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표현과 행위의 자율성, 참여의 유연성과 능동성, 물리적 한계의 초월성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발생과 전개를 촉진하기 때문이다[13,14].

이후, 해당 이슈와 기사들에 대한 연구진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집단감정의 특성이 불분명한 2010년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를 제외하였다. 그 외의 5개 스포츠이슈들은 제외된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와 비교하여 각 이

슈에 관련된 상반된 입장이 명백하여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이라는 대비되는 집단감정이 확인되었고, 각각의 이슈에 대해 명확히 확인 가능한 관련 협회 등의 홈페이지 마비·잠정 폐쇄, 청와대 청원 등의 집합행동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구진 회의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상화 선수의 은메달 획득 이슈와 관련 포털 기사 1건을 추가 수집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스포츠이슈들의 집합행동이 불만과 항의의 표출이라는 적대적 형태로만 편향되게 나타나, 이에 대비되는 우호적 형태의 집합행동을 개념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호적 댓글 이외의 집합행동은 발견되지 않는 이슈였다.

집합행동 수집 대상인 최종 5건의 스포츠이슈로부터 각각 청와대 청원, 청원 게시판 마비, 협회 홈페이지 마비, 임시 폐쇄 유도, 우호적 댓글 등 객관적으로 보도된 SNS 상의 대중의 행위를 집합행동의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선정된 5건의 포털 기사에 달린 감정 표현 댓글들을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의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포털 기사의 댓글과 같은 SNS 상의 댓글들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 감정의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표현 [12,14]이기 때문이다.

수집 대상 스포츠 이슈의 포털 기사와 분석대상 댓글 수 및 대중의 행위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subjects of sport issues

Article(Issue)	No. of com.	Behavior
1. Opposite feelings of South Korea and Russia about Ahn's gold medal	1,120	Long down & doubted close of web-site
2. Fail to participate in Pyeongchang, 'I'm disappointed for 4 year's Effort'	1,957	Petition(6,159)
3. Fail of communication and operation', fail to be 1 team 'Pursuit'	8,151	Petition(614,127) Down of web-site
4. KSU explains about the flap of executive visiting 'Lee was awake and he just gave encouraging'	2,551	Down of web-site
5. Lee won silver medal at her last Olympic, did great job	102	Commenting

2.2 자료 수집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스포츠이슈와 관련 포털 기사로부터 분석대상 댓글을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Python을 활용하여 수집된 전체 댓글 중,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해당 스포츠이슈와 무관한 정치적 댓글 등을 제외하고 각 포털 기사 별 추천 수 기준 상위 100개 씩, 총 500개의 댓글을 선별하였다.

분석대상 집합행동은 해당 스포츠이슈를 기준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행위로 포털 기사에 언급된 각각의 집합행동을 수집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거친 최종 500개의 댓글과 5가지 유형의 집합행동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자료 처리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최종 수집된 분석 대상 댓글은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전문가 각 1인과 연구진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Smelser의 ‘일반화된 믿음’의 개념을 기준으로 대중적 가치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이에 배치되는 대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강도에 따라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댓글의 대중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우호적·적대적 감정에 대한 점수 부여 기준은 다음 Table 2와 같다. 1점의 경우는 감정적 표현 없이 단순한 현상 기술이거나 혹은 대립되는 감정만이 표현 된 경우, 2점의 경우는 약한 감정적 표현, 3점의 경우는 중간 수준, 4점은 강한 감정 표현, 5점의 경우는 욕설 등을 포함하는 매우 강한 비난이나 열광 등의 감정표현에 부여하였다.

집합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SNS 상의 대중의 행위의 위 Table 1에 주어진 행위를 중심으로, 불만 및 항의의 제기 빈도와 강도 및 집중도를 고려하여, 소수의 청원 제기나 단시간의 홈페이지 접속 장애(Table 1의 2, 4번 이슈)는 3점, 장시간의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및 차단의 경우는 4점(Table 1의 1번 이슈), 다수의 청원 제기과 이에 따른 청원 사이트 마비의 경우는 5점(Table 1의 3번 이슈)을 부여하였다. 집합행동의 비교대상으로 채택된 5번 이슈의 경우는 집합행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각의 점수가 부여된 집단감정

은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각 이슈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Table 2. The standard of measuring for collective emotions on comments

Strength point	Collective emotion	
	Amity for the proper to generalized belief	Hostility for the non-proper to generalized belief
1	Just description	
2	Weak emotional expression	
3	Middle emotional expression	
4	Strong emotional expression	
5	Derision or rave	
* Examples		
Comments	Amity	Hostility
I feel irritated. Kill yourself, f***ing KSU.	1	4
Good, good. Stupidness of KSU has been revealed by Ahn's Win!	2	3
Lee! You would be remembered as a great history of us. we know you great efforts and	5	1

3. 결과 및 논의

3.1 스포츠이슈에 대한 스포츠 집단감정

SNS에서 발생하는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f amity and hostility for issues

Amity for Issue	M	SD	F	p	post-hoc
1. Ahn's gold medal	2.19	1.042	56.766	.00	4<2<1,5
2. Fail to Participate	1.44	0.743			
3. Fail to be 1 team	1.25	0.642			
4. Flap of visiting	1.02	0.141			
5. Lee's silver medal	2.28	0.877			
Hostility of Issue	M	SD	F	p	post-hoc
1. Ahn's gold medal	2.92	1.300	49.844	.00	5<2<3,1
2. Fail to Participate	2.43	0.935			
3. Fail to be 1 team	2.91	0.996			
4. Flap of visiting	2.58	0.768			
5. Lee's silver medal	1.30	0.541			

우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의 금메달 획득과 한국 선수의 메달 획득 실패 소식을 전한 1번 이슈에서는 귀화한 안현수 선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 한국빙상연맹(KSU)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관찰되었다. 안현수 선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M=2.19$, 한국빙상연맹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M=2.92$ 로 우호적 감정 및 적대적 감정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빙상연맹의 업무상 과실로 노선영 선수의 팀 추월 자격이 상실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던 2번 이슈에서는 노선영 선수에 대한 동정적 감정으로서의 우호적 감정이 $M=1.44$ 로 중간 정도의 강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한국빙상연맹의 무능력을 탓하는 적대적 감정이 $M=2.43$ 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뒤늦게 여자 팀 추월 대표팀 합류가 가능해진 노선영 선수를 남겨두고 나머지 두 선수만 결승선을 통과해 대표팀 내 따돌림 논란을 일으킨 3번 이슈의 경우는 노선영에 대한 동정적 관점에서 다소 약한 $M=1.25$ 의 우호적 감정이, 반대로 결승선을 통과한 두 선수에 대한 비난을 주로 하는 적대적 감정이 $M=2.91$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의 결승전을 앞둔 아침에 한국빙상연맹의 임원이 이상화 선수 등의 대표 선수단을 방문하여 선수들의 컨디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4번 이슈에서는 이상화 선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M=1.02$ 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해당 이슈의 초점이 임원의 방문이 야기한 컨디션 난조에 맞춰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빙상연맹 임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M=2.58$ 로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집합행동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5번 이슈는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사실을 전한 내용으로 이상화 선수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는 우호적 감정이 $M=2.28$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뚜렷한 대상이 없는 적대적 감정은 은메달을 강조하는 기사의 논조를 비판하는 표현이 소수 나타나 $M=1.30$ 으로 매우 낮게 관찰되었다.

이상, 각각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뚜렷한 우호의 대상이 없

는 3번과 4번 이슈와 뚜렷한 적대의 대상이 없는 5번 이슈의 해당 감정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스포츠이슈의 내용에 따라 그 집단감정의 내용 역시 차이가 나타남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1]의 연구가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여준 스포츠이슈와 집단감정 간의 인과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한편 뚜렷한 우호의 대상이 있는 2번 이슈에서는 우호적 감정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적대적 감정이 비교적 강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안현수의 성과에 기초한 1번 이슈에서는 안현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매우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처럼 스포츠이슈의 내용이 누군가의 성과를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대적 감정이 주로 나타나는 형태는 집합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집단감정이 단순한 비합리적 흥분 상태의 정서반응이 아니라 외적 자극에 대한 인지와 평가의 과정을 거친, 일정한 지향성을 지닌 합리적 반응[6]이자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한 반응임[9]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3.2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 계수는 $-.251, -.334, .504$ 로 $p < .001$ 수준에서 중하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of collective emotion and collective behavior

	Collective behavior	Amity	Hostility
Collective behavior	1	-.251**	.504**
Amity		1	-.334**
Hostility			1

** : $p < .001$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다중회귀분석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스포츠 집단감정의 우호적 감정은 집합행동에 대하여 $\beta = -.093$ 의 기여도를 가졌으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적대적 감정

은 $\beta = .473$ 의 기여도를 가졌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포츠 집단감정으로부터 집합행동으로 이어지는 위와 같은 인과 모형은 수정된 $R^2 = .259$ 로 약 25.9%의 설명력을 가졌다($p < .05$).

이러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1]에서 추론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명확히 검증한 것이자 본 연구의 서론에서 논의한 스포츠 감정동학 기제의 이론적 타당성을 계량적으로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었던 SNS에서의 집합행동이 주로 적대적 감정에 기반을 둔 불만과 항의의 제기였는데, 적대적 감정이 집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호적 감정이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모형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분노 등의 감정이 보다 적극적인 집합행동으로 표출된다는 [6]의 연구와 더불어, 보다 나은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구조적 긴장을 극복하고자 집합행동이 나타난다는 Smelser의 연구[9]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할 수 있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collective behavior

Collective emotion	B	SE	β	t	p
(constant)	2.050	.185		11.101	.000
Amity	-.136	.060	-.093	-2.263	.024
Hostility	.565	.049	.473	11.566	.000

$R^2 = .262$, adjusted $R^2 = .259$, $F = 88.052$, $p = .000$

4.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를 근거로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로부터 집합행동이 명확히 관찰되는 스포츠이슈 5건과 해당 이슈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논조를 지닌 포털 기사 5건을 집단감정 및 집합행동의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yth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5건의 포털 기사에 달린 전체 댓글을 수집 한 후, 추천 수

에 따른 상위 100개 씩 총 500개의 댓글을 집단감정의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해당 이슈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고된 대중의 행위를 집합행동의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선택된 집단감정 분석대상 댓글에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각각 1~5점의 우호적 감정과 적대적 감정 점수를 부여하여 집단감정을 분석하였으며, 집합행동에 대하여도 행위의 강도와 참여 인원 등을 기준으로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집합행동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집단감정은 스포츠이슈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이는 집단감정이 단순한 비합리적 흥분상태가 아닌 지향성을 가진 합리적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호적 감정은 집합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부(-)적 영향이, 적대적 감정은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NS에서의 스포츠이슈에 대한 집단감정과 집합행동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스포츠 감정동학의 기제에 따른 SNS에서의 스포츠이슈, 스포츠 집단감정, 집합행동 간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집합행동을 일으키는 스포츠 집단감정은 주로 부정적 감정이며, 이때의 집단감정은 상황에 대한 합리적 반응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정성적 고찰의 방법을 통해 주로 언급되었던 스포츠 집단감정과 집합행동의 인과관계를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에는 집합행동이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스포츠 감정동학 기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A Time-Series Analysis for Emotional Dynamics of Sport Issue and Group Emotion : Focusing on Korean Swimming Player Tae-Hwan Par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93-400.

[2] C. T. Son & H. S. Youn. (2011). Investigation into Positive Functions of Sports Nationalism Compatible with Globaliz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3), 37-44.

[3] B. N. Lee. (2002).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 Cultural Reform by Sports Fandom : Focused on a Professional Baseball Team's Fan Club and supporte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4]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Tendency in Sport Emotion of Korea n : Focusing on 2016 Brazil Olympic Gam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41-349.

[5] L. Grossberg. (1992). "is there a fan in the house?," in Lewis L, ed, *The adoring audiences: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New York : Routledge.

[6] H. S. Park. (2018). Collective Action and Emotions : When and Why Is Collective Resentment Expressed Violently? *Korean Studies Quarterly* 41(2), 161-195.

[7] D. S. Kim. (1981). Collective Behavior; especially on the sociological orientations= Collective Behavior: A study on the some theoretical orientations(II). *Theses collection of hansa university*, 11, 275-291.

[8] D. S. Kim. (1980). Collective Behavior; especially on the sociological orientations= Collective Behavior: A study on the some theoretical orientations(I). *Theses collection of hansa university*, 10, 357-382.

[9] N. J. Smelser. (1963).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New York : The Free Press.

[10] H. S. Park & S. N. Joung. (2009). Toward the Macro-sociology of Emotions. *Society and Theory*, 15(2), 195-234.

[11] G. M. Lee & S. W. Im. (2003). The Effects of Professional Baseball Gam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Teams on Regional Emo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16(1), 73-92.

[12] S. M. Hong. (2013). *Social network*. Seoul : Power Book.

[13] J. M. Ahn.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Portal Journalism: Breaking News, Interaction, and Relative News with reference to Naver News and Yahoo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1), 18

7-218.

[14] R. J. Park. (2015). *System dynamics model for the generation and diffusion of complex collective action*.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이 종 길(Lee, Jong Kil)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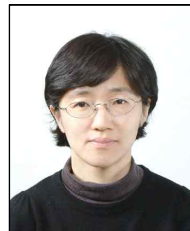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학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와 사회문제
- E-Mail : jklee@cnu.ac.kr

이 공 주(Lee, Kong Joo)

[정회원]



- 1994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석사)
- 1998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박사)
- 2005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 정보검색, 정보추출
- E-Mail : kjoolee@cnu.ac.kr

양 재 식(Yang, Jae Sik)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이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전통무예 전승·보급
- E-Mail : 4774495@hanmail.net